

19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考察

許 允 禎*

目 次

- | | |
|----------|---------------|
| I. 序 言 | 5. 圓唇母音化 |
| II. 本 論 | 6. 單母音化 |
| 1. 口蓋音化 | 7. /·/의 變貌 |
| 2. 頭音法則 | 8. 母音調和의 解體樣相 |
| 3. 硬音化 | 9. 其 他 |
| 4. 口蓋母音化 | III. 結 論 |

I. 序 言

15세기를 비롯한 中世國語의 연구는 이미 많이 행해져 왔으나, 이에 비해 近代國語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세기 國語 研究는 등한시된 느낌이 적잖다.

이렇게 近代國語 특히 19세기國語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연구의 재료인 자료 부족에서 그 직접적인 이유를 내세울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訓民正音 創製를 전후한 시기의 國語研究에만 지나치게 관

* 국어교육과 4년

※본 논문의 구상과 집필에 도움을 주신 金泰現 指導敎授님께 감사드린다.

심을 쏟아 왔던 종래의 연구 태도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단순히 19세기 國語 研究가 近代國語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近代國語라는 큰 틀의 일부 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비록 19세기 國語가 近代國語의 末期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종합하여 19세기 國語의 실체를 먼저 定立하고, 나아가 이런 연구 성과와 17·18세기 國語 研究의 내용을 종합하여 近代國語라는 하나의 커다란 범주를 정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¹⁾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 방법 혹은 방향을 모색해서 보다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와야 하겠고, 이러한 연구들이 모아질 때 올바른 國語史의 定立은 물론 現代國語 研究의 밑바탕으로서 現代國語의 모습을 밝히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후반기 문헌들인 ‘關聖帝君明聖經譯解’, ‘南宮桂籍’, ‘三聖訓經’, ‘過化存神’, ‘龍君靈蹟誌’, ‘敬惜字紙文’, ‘關聖帝君五倫經’ 등을 통해 나타나는 音韻現象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言語現象의 연구는 우선 자료 자체의 語學的分析 및 綜合이 중요하겠으나 자료의 語學的分析이 아무리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해도 表記者의 出身·成分 및 자료의 發刊 地域이나 發刊 目的 등 언어 외적 부분에 대한 측면도 연구의 방향이나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言語는 時代別로도 차이가 있지만, 地域間的 차이와 身分階層上的 차이(특히 과거에는 이런 측면의 차이가 컸을 것이다.), 口語와 文語, 日常語와 非日常語 등의 차이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료 자체의 限界性(제한된 量的·質的 水準 혹은 表記者 문제 등)이나 言語 使用과 言語 研究 사이의 시간적 격차 및 言語活動의 상황을 현단계에서는 직접 연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語學的文獻研究는 각 시대의 國語 定立에 있어서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특히 19세기 國語 研究는 이제 비로소 시작의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도 그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試論的 성격을 띤다.

1) 國語史의 분류는 李基文의 國語史概說(塔出版社, 1985)에 따랐다.

본 연구는 문헌의 版刻者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문헌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각 문헌의 特殊 事項을 고려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문헌 자체의 語學的 分析에 중점을 두어 연구함을 기본 입장으로 취한다.

본 연구의 分析 對象이 되는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略稱)

- 關聖帝君明聖經諺解(明)~1883년(高宗20年) 刊行
- 南宮桂籍(南)~1876년(高宗13年) 刊行
- 三聖訓經(三)~1880년(高宗17年) 刊行
- 過化存神(過)~1879년(高宗16年) 刊行
- 龍君靈蹟誌(龍)~1881년(高宗18年) 刊行
- 敬惜字紙文(敬)~1882년(高宗19年) 刊行
- 關聖帝君五倫經(五)~1884년(高宗21年) 刊行

II. 本 論

1. 口蓋音化

‘ㄷ·ㅌ’의 口蓋音化 현상을 보면, 먼저 用言의 活用의 경우 ‘잇논디라(三19b) 쓰디(同24a), 밋디(龍20b), 먹디(同20b), 듯디(同23b), 뵈디(同26b), 엇디(同29b), 맛디(同29b), 말디어다(同33b)’ 등을 제외하면 現代國語와 다를 바 없다.²⁾ 體言의 경우도 특정한 몇 가지 漢字語를 제외하면 現代國語와 비슷한 정도로 口蓋音化가 진행된 상태를 보인다. 우선 漢字語의 표기 예로 볼 때 ‘天·地·帝·第’의 경우는 ‘턴·디·데·데’로 표기되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들 漢字語들도

‘췌지(三4b), 천리(同13b), 천상(龍13b), 천괴(同25b), 천동치(敬9a); 지옥(龍25a), 심치(三11b), 지왕(龍12b); 제왕(三16); 효제(明96), 금제(過20a), 제일(龍11b)’

2) 用言의 예를 약간 소개해 보면, ‘칙혀(明12a), 고치지(龍9a), 초흔(同25a)’ 등을 비롯해서, ‘스못치니(南8a), 지나논(同10a), 셔치며(三5a), 셔러치미(同19a), 모칠어도(過11b)……’와 같이 나타난다.

등과 그 표기가 並行되고 있다. 이로써 이미 發音上 口蓋音化된 상태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 漢字語 이외에는 대개 표기상으로도 口蓋音化된 경우가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표기에 보인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선(過18b) : 초선(同19a), 가덩(南5a) : 가창(竈22b), 조덩(五5b) : 조창(過17b), 퇴덩(敬1b) : 퇴창(14b), 특수(過20a) : 축수(竈11b), 가당(五7b) : 가창(過11b), 속퇴(竈11b) : 최명(過19b), 관대(過17a) : 법체(南1a), 형대(南8a) : 형체(明9b)……

이상의 사실들로 볼 때, 당시의 國語에 있어서 발음상으로는 이미 ‘ㄷ·ㅌ’의 口蓋音化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現代國語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다만 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漢字語의 경우는 특히 文語的 要素가 강하고 표기상 保守性이 강한 이유로 해서 당시까지도 保守的 表記 狀態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ㄱ’이나 ‘ㅎ’의 口蓋音化 現象은 이들 문헌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유일하게 ‘ㅎ’의 口蓋音化의 例로서 ‘세(明35a, 舌)’가 보인다. 이렇게 ‘ㄱ’이나 ‘ㅎ’ 口蓋音化의 예가 보이지 않고 있음은 그 현상이 아직 一般化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地域的 差異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이상을 정리해 보면, ‘ㄷ·ㅌ’ 口蓋音化 현상은 漢字語인 경우에 한해 특정한 글자에서 口蓋音化되지 않은 채 表記되고는 있으나, 이런 예들도 이미 口蓋音化된 語形과 並行되고 있다. 固有語의 경우는 用言에서 약간의 예를 제외하면 완전히 現代國語와 같은 표기를 보인다. 따라서 音韻變化의 현실로 볼 때 이미 漢字語도 발음상으로는 口蓋音化를 거처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갓치(明8b), 밋치(同10a), 붓쳐(同6b)’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마음밭출(明26a)’과 같은 표기도 보이고 있어서 ‘ㄷ·ㅌ’ 口蓋音化의 一般化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 ‘ㄱ·ㅎ’ 口蓋音化를 겪지 않는 예를 보면, ‘견더여(明32a), 깃거(同34b), 기동(三1b), 기러쓰니(竈36b), 기우러지물(同39b), 기드릴지니(敬7b)……: 형체(明9b), 힘(竈3b), 휴지(敬9b)……’와 같이 나타난다.

2. 頭音法則

/i/系母音에 先行하는 ‘ㄱ·ㄴ’의 脫落現象, 즉 頭音法則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예를 보게 된다.

‘이치(三4a), 이익(同7a), 염녀(同11a), 임여금(過20a), 임시의(同20b. 林氏), 양선훈(同10a, 良善), 예경 하면(竈6b), 육이요(同10a, 六), 연고로써(同26a), 영으로(同12b. 令), 육보충이름(同23b), 임소의(同23b) 여직(同22a), 예와(明21a), 임군(同33a), 이웃(過13b), 옛날(竈19b), 여름(敬5b), …… 이케 하고(三5a), 임흔지라(過9b), 역역히(同26b), 연 하고(五5a, 聯), 이르릭(明10a), 일울(同7a), 이르지(同23a), 이어(同25b), 잇지(同31b), 일의켜게(過11b), 역이스(同20b), 일근(明15b)’

이상과 같이 頭音法則이 적용된 예가 매우 많이 보이는데, 이들 문헌에서는 語頭에서 ‘ㄱ·ㄴ·ㅇ’의 세 가지 형태가 파악된다. 그 예를 들어보면, 같은 單語라 해도

‘림 하느니(明23a) : 님 하야(南23a) : 임흔지라(過9b), 리케(南7a) : 니케(三5b) : 이케(三5a), 리치(三20a) : 니치(過13a) : 이치(三4a), 육십(南12b) : 육십(過20a) : 육일(過7b), 제법(明10b) : 네 하며(三4b) : 예경 하면(竈6b)’

등과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냥두스(南6b), 냥장장원(同15b), 니즈성(過10b), 니가(竈10a, 李哥), 은과(五7a), 냥십(同7b), 유(同5b)’

등은 원래 語頭가 ‘ㄱ’인 漢字語가 現代國語의는 달리 ‘ㄴ’으로 표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 문헌의 표기에서 頭音法則이 적용된 예가 19세기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頭音法則이 적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ㄱ’이나 ‘ㄴ’으로 표기되는 예가 훨씬 많다. 따라서 19세기말까지도 保守的인 表記 形態를 유지했다는 사실보다는 당시의 發音 方法이나 發音

位置가 현대와는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語頭子音が ‘ㄱ’인 漢字語의 경우 頭音法則이 적용되어 ‘ㅇ’으로 표기되는 예가 있는가 하면, /i/系 이외의 母音 앞에서는 ‘노성훈(三21b), 뇌성의(過10a), 늑적(龜11a), 뇌정(同14b)’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서 現代國語와 일치하고 있다. 語頭 ‘ㄴ’인 경우의 漢字語는 ‘너즈(三66), 너식(五9a), 너인(明8b)’ 등과 같이 아직 ‘ㄴ’이 그대로 표기되고 있으나 ‘너즈’는 ‘여즈(龜22a)’와 混用되고 있다.

固有語인 경우는 漢字語보다 더 頭音法則의 적용을 겪고 있어 그 예가 매우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이 외에 특이한 것으로서

‘청염훈(明10b), 망영도(同11b), 음단축겨늘(同14b), 경훈이(同19b), 넘너하야(南6b), 빅옥누에(過9b), 병난의(同11b), 관득(龜12a)’

등은 語頭가 아닌 곳에서 ‘ㄱ’이 ‘ㄴ’으로 혹은 ‘ㅇ’(零)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音節 終聲과의 연관성을 과약해서 애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니후로(龜5a), 니글을(同6a), 니왕에(同25a)’ 등에서는 오히려 ‘이’에 ‘ㄴ’이 첨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現代國語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漢字語의 統一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頭音法則과 관련해서 이들 문제 중 語頭 ‘ㄱ’과 ‘ㄴ’의 경우를 언급하기로 하겠다.⁴⁾

일정하게 어떤 규칙을 세워 본다면, 漢字語는 語頭가 ‘ㄱ’이든 ‘ㄴ’이든 /i/系母音 앞에서는 零化되며, 그 외의 母音 앞에서는 ‘ㄱ’은 ‘ㄴ’으로, ‘ㄴ’은 그대로 ‘ㄴ’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固有語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現代國語에 있어 頭音法則이란 語頭に ‘ㄱ’이 오는 것을 꺼리며, /i/系母音 앞에서는 ‘ㄴ’이 오는 것도 꺼린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⁵⁾

4) 李熙昇,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 (新丘文化社, 1983) pp. 301~308 참조.

5) 원래 語頭에서 /i/系母音 앞에서는 ‘ㄱ’이나 ‘ㄴ’이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할 수 있는데, ‘ㄱ’의 경우 /i/系 이외의 母音 앞에서는 ‘ㄱ’ 발음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ㄱ’을 전적으로 꺼리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혀의 작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ㄱ’의 발음에 필요한 혀의 사용을 꺼리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系母音과 혀의 작용에 관해 언급해 보겠는데, 口蓋音化와 頭音法則의 相關性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ㄷ'과 'ㄹ·ㄴ'은 모두 '잇소리·잇몸소리'로서⁶⁾ /i/系母音과 결합했을 때 口蓋音化와 頭音法則을 유발한다. 즉 口蓋音化에서는 'ㄷ→ㅈ' 頭音法則에서는 'ㄹ·ㄴ→ㅇ'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새삼 /i/系母音의 작용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데, 아울러 '잇소리·잇몸소리'에서 'ㅅ'이나 'ㅈ'은 혀(舌)보다 이(齒)의 작용에 더 좌우되는 齒擦音임을 생각하면, 혀의 작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ㄷ'과 'ㄹ·ㄴ'의 /i/系母音과의 결합 상태를 발음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음 경향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硬音化

硬音化(혹은 된소리化)는, 원래 並書가 된소리로 되는 경우(또는 앞音節 終聲과 뒷音節 初聲의 결합)와 軟音이던 것이 언어 사용 습관상 硬音으로 強化된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前者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표기상 'ㅅ'系나 'ㅈ'系 並書가 매우 많이 보이는데, 이들 문헌에서 並書例들은 現代國語에서 대부분 된소리로 발음되며 各自並書로 표기된다. 그런데 現代國語와 같이

'도모홀고(過14b), 업즌지라(明6a), 업셔(同11b), 갓더니(同33b), 상ㅎ얏도다(籠12a), 뜻치엇겨늘(同19a), 망영되이(同38a), 억치로(同40a), 붉게(五5a).....'

로 표기되지 않고 발음되는 그대로

'안췌ㅎ니(明31a), 삼쇼(同32a), 널쇼(同33a), 우슴췌다(同38a), 망영췌이(籠4a), 남췌니(同13b) 갓췌니(同17b), 억췌의(同36a), 말췌(五9b), 업췌지더니(籠10a), 업췌니라(籠16b).....'

와 같이 표기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ㅅ'이나 'ㅈ'並書가 된소리임을 말해 주며

6) 許雄, 國語音韻論, (正音社, 1982), pp. 33~34참조.

현대와 같이 形態論의 表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당시 現實發音과 表記間의 不一致 상황을 통해 일정한 表記體系가 잡혀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현상으로서, 된소리로 발음은 되면서도 표기상으로는

‘뻗을(明6b), 엇지(同11a), 맛당이(同12a), 박구엇도다(同20a), 맛운(同22b), 붓으런(同22b), 잇으니(同28b), 식키(同33b), 깃켜 ㅎ샤(同34b), 닷으며(南7a), 웃음(同13a), 앓기며(三5a), 깃운(同20a), 어엇운(同24a), 독희(龜7a), 밤비(龜11a), 엇더케(敬2b)’

와같이 나타나는 예들이 있다. 이런 경우 前音節 終聲이 뒤에 오는 初聲과 결합하여 硬音化作用을 일으켜서 現代國語에서는 이들 모두가 뒤의 初聲에 並書된다. 이들 문헌 가운데서도 ‘웃음(三4a), 익치(過13b), 잇으러(龜19a)’와 같이 硬音화된 표기를 보이는 예도 나타난다.

한편 다음의 형태도

‘신장까지(明8a), 상대계셔(同14a), 턴더희(敬1b), 죽을가(同6b), 불다름이오(南1b), 들치쌀(龜42b), 슬치우고(五6a)……’

다음처럼 硬音化된다.

‘삼더까지(明25b), 조신씨(龜10a), 턴즈씨(明17b), 싸름(三19a), 죽을까(三11a), 들쳐쌀(龜45b), 살뵤(南9b)’

아직 硬音化되지 않은 ‘말춤(明6a), 일즉이(同7a), 다섯식(同7a), 눈첩(同15a), 글씨(龜6b), 이지러터려도(明23b)’ 등의 예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漢字語인 雙은 완전히 硬音化된 형태만 ‘쌍눈동즈(明15a), 쌍친(三4b), 쌍봉짜(過18a)……’와 같이 나타난다. 氏인 경우는 ‘현원씨(明13b), 양씨(南11b), 왕씨(同15b), 심씨(同16a), 광씨(同16b), 리씨(同16b), 임씨(過20b), 서씨(敬5b)……’와 같이 표기되기도 하고, ‘두씨(三10b), 장씨(龜3b), 주씨(同9b), 강씨(同12a), 너씨(同12b), 양씨(同18b), 당씨(同24a), 성씨(同36b)……

와 같이 硬音化된 形態와 混用되어 쓰이고 있다. 이들 漢字는 이미 발음상으로 硬音化가 완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면, 표기상 現代國語의 맞춤법과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음에 있어서 'ㅅ'系나 'ㅂ'系 並書가 된소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아직 並書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表記體系가 일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表記의 混亂을 말해 주는 사실이며 표기와 발음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不一致·不合理의 결과라 할 것이다.

4. 口蓋母音化

齒擦音 'ㅅ, ㅆ, ㅈ' 아래에서 /으/가 /이/로 나타나는 현상, 즉 口蓋母音化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들 문헌의 경우 'ㅅ, ㅆ, ㅈ' 밑에서 /으/·/이/가 나타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하다. 같은 單語內에서도 /으/와 /이/가 混用되기도 한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츠음(龜14b) : 치음(同26b), 축금(明14b) : 치금(過10b), 촛뱀으며(敬1b) : 칫발피여(過11b), 출겨오더(南3a) : 칠겨운(明11a), 출기되(南4b) : 칠기는(龜27b), 출겨(龜25b) : 칠겨(同10b)'

등과 같이 첫音節의 경우나,

'일축(龜9b) : 일직(同9b), 거춧(三6b) : 거칫(龜39b), 어즈럽지(三19b) : 어치러온(明10a), 마즈러ㅎ미(龜23b) : 마치리오(明10a), 마즈러ㅎ미(龜23b) : 마치리오(同29b), 츠츠니(明18b) : 츠치니(同18b), 맛흔지라(南2a) : 맛치떡(同17b), 다스리시니(過11b) : 다시리논(明9a), 잇즈니(龜25a) : 잇시니(五9a), 앞외엇즈미(龜20a) : 단좌ㅎ엇시니(同26a).....

와 같은 둘째音節 이하인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音節의 위치에 관계 없이 나타난다. 위의 예들은 모두 원래 /으/이던 것이 /이/와 混用된 경우로서 口蓋母音化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원래부터 /이/였던 것이

／으／와 混用되는 현상도 있다. ‘오직(三7b) : 오측(明9a), 징계 학교(五7a) : 증계홀(三20b), 부치런니(龜32b) : 부츠런이(敬6b)……’의 경우가 그것이다.⁷⁾ 이외에 口蓋母音化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달늬호 직(龜10b), 직시(同23b), 칭양치(同35a), 이치러지고(明22b)’

등을 비롯하여 ‘느치나(明23a), 인치되(同31a), 미·친(同35a)……’의 경우처럼 用言의 活用에까지도 나타난다.

이러한 口蓋母音化 현상은 턴로력덩(1895년刊)이나 독립신문(1896年)에서만 그 예를 찾았을 뿐 그 이전 문헌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으나⁸⁾, 여기 문헌들을 통해 많은 예를 보게 된다. 이들 문헌이 19世紀 70年代에서 80年代의 문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은 時·空間的인 어떤 特定性은 있겠으나 대략 19세기 中期부터는 이미 발음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齒擦音 ‘ㄱ, ㅅ, ㅈ’ 아래에서 /으/와 /이/가 混用되는 현상이 문헌 전반에 一般化되어 표기된 점으로 보아, 정확한 語形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發音위주의 표기를 함으로써, 母音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무시했던 게 아닌가 한다.

口蓋母音化 현상은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난 音韻現象이다. 이처럼 많은 예가 이들 문헌에 보임으로써 문헌의 語學的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口蓋母音化 현상 자체의 연구는 물론이고 이런 현상과 다른 音韻現象들의 相關性을 밝힌다면, 國語의 音韻史的 흐름의 이해에도 적잖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5. 圓唇母音化

兩唇子音 ‘ㅁ, ㅂ, ㅃ’ 아래 /으/가 /우/로 나타나는 圓唇母音化 현상을 보기로 하자. 표기상 保守的 형태를 보이는 예로서

7) ① ‘아측(明32b), 약출노(南16a), 오측이(龜22b)’ 등도 원래는 /이/ 母音이지만 /의/로 나타나는 예다.

② 口蓋母音化 되지 않은 예를 보면, ‘측명(過12b), 음성(龜7a), 은훈(敬6b), 측간(同1b), 침죽(三23b), 일측이(·10b)……’와 같이 나타난다.

8) 南廣祐, 國語學研究, (宣明文化社, 1975), p. 28참조.

‘을(南1b), ㅎ을며(同1b), 흔득(同3a), 눈을(同5b), 적을(同6a), 만을(同7a), 그을(同7a), 허을(三22a), 독괴등을(龜7a), 흐손(同4a), 흘효(五4b), 변흠(同7b), 저을게(南4b), 흘너나오다가(同13a), 흐든(三4a), 흐즈런이(敬6b), 붓쳐(同9a), 흘니쳐(五5b)’

등이 보인다.⁹⁾ 하지만 이런 예는 少數이고 이보다는 오히려

‘그을(明21b), 후든(同28b), 저훈(同30b), 붓쳐(南2a), ㅎ을며(三4b), 흘니치며(同19b), 흘너가나라(過17a), 흔득(同18b), 후손(五4a)’

등 /우/로 쓰임이 일반적인 표기 경향이다. 이외에도

‘더후러(明4b), 흘(同12a), 스을(同28b), 등을(南8a), 후룻(三3b), 훈으질으며(同5a), 흠고(同24a) 후억(龜14b)……’

과 같이 많은 예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이미 圓唇母音化 현상도 近代國語에서 現代國語를 잇는 19세기 國語의 中間過程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몇몇 가지 保守的 表記例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現代國語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用語의 活用 部分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슈후니(明29b), 스후면(同31a), 덩후시키고(南1b), 갑후며(同7a), 말릭아후밀너라(同16b), 일스후면(過20a), 널후리라(龜13b), 푸훈(明28b), 말머훈(同29b), 절훈(南4a), 거훈(三24b), 눈훈(龜6b), 깊훈(同21b), 나훈(同22b), 가을(三22a)……’

등이 보인다. 曲用의 경우에도

9) 여기서 ‘만물, 적물, 허물, 독괴등물’ 등의 ‘물(物)’이나 ‘불효’의 ‘불(不)’은 원래는 ‘물·불’이던 것이 이들 문헌에서는 오히려 /으/母音으로 나타난 예이다. 그렇지만 ‘물·불’로만 쓰인 게 아니라 ‘만물(明22a), 적물(三5/), 부죽훈(敬8a)’ 등 ‘물·불’로 표기되는 현상이 더 일반적이다.

‘굽ㅎ물(三4b), 갈으치물(同4b), 잇쓰물(竈13b), 깃부물(同14a), 밧들물(同20a), 면ㅎ물(同20b), 잇스부로써(同24b)……’

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形用詞化 接尾辭인 ‘브, 뷔, 프’인 경우를 보아도 ‘슬푸다(明30a), 밧부물(南2a), 여엇분(三24a), 깃부물(竈14b)……’와 같이 /우/가 나타나고 있다.¹⁰⁾

이상의 사실로 보면, 우선 現代國語에서 形容詞化 接尾辭가 ‘브, 뷔, 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표기와 현실 발음과의 一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현대와는 달리 그 표기를 ‘부, (부), 푸’로 하고 있고, 用言의 活用이나 體言의 曲用에까지도 圓唇母音化의 영향이 미쳐 당시에 이미 이 현상이 一般化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單母音化

單母音化 현상에 대해서는 /의·익·위/ 등의 경우와 함께 齒擦音 ‘스, 스, ㄷ’ 다음의 /j/ 重母音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現代國語에서는 單母音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문헌에서 /의·익·위/로 표기된 경우를 보면 우선 漢字語의 예로서,

‘치록(明6b), 치틀(同11b), 치뛰(同33b), 치이훈(南12b), 치ㅎ논(竈6b)……
정치(明12b), 의치(同34b), 투치(南8a), 요치러운(過11b), 향치(竈39a), 목숨
치(五5a), 경치(南4a), 인치(同17a)……’

등 첫音節이나 둘째音節에 관계 없이 /의·익/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固有語는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첫音節에 /의·익·위/ 등의 二重母音이 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현상이 있다. /의·익·위/ 등의 重母音 表記例를 보자. /의/의 예로서

10) ‘슬푸다’의 경우 유일하게 (五)에서 ‘슬프고(7b)’가 /으/ 母音을 취했고, /우/가 /으/로 나타나는 예로서는 앞에서 본 ‘물(物), 불(不)’ 외에도 ‘프리(五6a, 群), 프례(同7b, 無), 흥등(同9a)’ 등 (五)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어희지(三4a), 여희서(同19b), 니희고저(同23a), 독희(竈7a), 모희여(明8b), 무뉘지라(同10a), 더희고(同19a), 부뉘치라(同26a), 드희여(竈27a), 업희여(過11a), 어뉘(竈8a), 아희(明28b), 아희(敬4a), 임희(南1a), 가희남글(同8b), 뉘워 ㅎ고(三22b), 희집(五7a), 사나희(同7b), 일희켜제(過11b)……’

와 같이 나타난다. 이들 예에서 ‘기·뉘’의 표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익/의 예를 보면,

‘기터려(明30a), 전터여(同32a), 어터로(南5a), 드터여(同15b), 부터(過13a), 본터(同13b), 업터여(竈19a), 어뉘(竈28b), 쇼터(明7b), 뉘들고(同14a), 말히압아(三19a), 선터(明31a), 뉘록(三3b), 잔츰(明18a)……’

와 같이 나타난다. ‘드터여, 업터여, 어뉘’의 예들은 ‘드뉘여, 업뉘여, 어뉘’와 混用됨을 볼 수 있다. /위/의 경우는,

‘호뉘질(明12b), 아뉘(三4a), 가뉘여이(過12a), 뉘오고(竈6b), 뉘워 ㅎ미(同19a), 뉘뉘(同28b)……’

과 같이 나타난다.¹¹⁾ 그런데 ‘비여(明1a), 어니(同16a), 소리(同31b), 시골(南11a), 편각(竈13a), 피우고(同21b), 만들기울(同22a)……’ 등과 같이 單母音의 형태가 보인다. 여기서 ‘뉘→비-, 뉘우→피우-, 미뉘→뉘뉘→미뉘-, 아뉘>아뉘>아비, 희집>시집, 가뉘→가비-’ 등의 현상은 /위/의 單母音化 진행을 시사한다. 註(12)에서 보았던 ‘기터려, 뉘록’의 경우 및 움라우트(umlaut) 현상을 보이고 있는

11) ① 특히 現代國語에서 ‘무디-, 더디- 부뉘-, 마디, 드디여, 업디-, 어디, 부디, 본디……’의 경우 ‘디’가 口蓋音化 현상을 겪지 않은 이유도 이들이 본래 ‘-뉘/터’라는 重母音이었기 때문이다. 즉 /의/ /이/의 변천이 口蓋音化 시기보다 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헌은 中世 後期와 現代를 잇는 音韻變化的 중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익/에서 ‘기터려, 뉘록’은 원래는 ‘기드러다, 비록’인 單母音이었는데 오히려 重母音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자바힘게다가(明16b), 시계(同18a), 지렁이(同28b), 식이에(同31b), 식기(同33b), 피여(同33b), 실오리키(過12b), 익서지(龜9a), 식여(同23b)’

등으로 볼 때 /익/도 또한 單母音으로 발음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國語音韻史研究에서¹²⁾, 18世紀 서울말에서는 二重母音 /익/가 ‘·>아’ 변화로 /애/에 合流되고 이 /애/가 單母音化를 일으켜 /ε/로 변했다고 한다. 문헌 표기상 대부분 /애/가 /익/로 나타나고 있어서 음라우트를 보이는 /익/는 單母音으로서의 /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의 /익/나 /의/까지도 單母音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의/의 경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되’ 대신에 ‘-되’가 쓰인 현상이 있다. ‘-되’는 원래 ‘-데’였는데 대부분 ‘-되’로 표기되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예를 보면, ‘-데’의 경우 ‘착헌데(龜14a), 지리헌데(同30a), 험헌데(同39a)’ 등 약간의 예가 보인다. ‘-되’는 (明)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가운되(19a), 깃분되(20a), 호논되다(20a), 낮타닌는되(21a), 드렛논되(30a)……’와 같이 대부분의 ‘-데’가 ‘-되’로 표기되고 있다.

그런데 (龜)의 경우 ‘청컨되(1a), 감문되(30a)……’와 더불어 ‘안닌되(14b), 잇논되(20b), 다른되(27a), 바라논되(30/i/), 아지못호논되(33a), 명명헌되(34a), 악헌되(34a), 난든되(37a), 이헌되(40b)’ 등과 같이 ‘되’ 표기가 나타난다. ‘-데, -되, -대, -되’의 발음상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의 音價消失로 인해 /애/와 /익/, /에/ 그리고 /의/ 등은 서로 混用되는 현상을 빚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의 경우는 이들 문헌에서 ‘괴, 되’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런 표기 현상으로 볼 때, 발음상으로 /의/가 완전히 單母音으로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또 現代國語에서의 발음과 같았을 것인지도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齒擦音 다음의 /j/ 重母音의 非 /j/ 重母音化되는 현상은 대체로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걸쳐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는 齒音의 主變異音이 혀끝소리인 [s ts ts^h]에서 聲입천장소리인 [ϕ tʃ tʃ^h]로 변했음을 의미한다.¹³⁾ 그런

12)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1985), pp.123~124참조.

13) 許維, 國語音韻學, (正音社, 1982), p.443참조.

데 여기 문헌에서는 齒擦音 다음에서 /j/ 重母音의 非 /j/ 重母音化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非 /j/ 重母音이던 것조차도 /j/ 重母音으로 표기되기가 일쑤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표기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발음 현실에 주목하게 하는데, 우선 문헌에 나타나는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헌을 보면 /j/ 重母音은 陰性母音일 경우(/어·우/系)에 대부분 해당된다. 陽性母音일 때(/아·오/系)는 문헌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역시 /j/重母音 표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아·오/系는 /j/ 重母音과 함께 /·/표기가 많이 보인다.

國語音韻學에서 다루어지는 예¹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래는 /j/ 重母音이 아니었던 것이 ‘셔로(明6b), 세가지(三4a), 쉼어(過10a), 이제야(寔2b), 샹이여(同5a), 갓쵸고(同11b)……’와 같이 /j/重母音으로 나타난다.¹⁵⁾ 원래는 /j/重母音이었다가 非/j/重母音으로 나타나서 두 가지 다 混用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쇼(三6a) : 초(明17a), 초고만혼(三6b) : 초곰식(明31b), 초혼(過13a) : 초혼(明11a), 흥회(寔6b) : 초회(南8a)……’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원래는 非/j/重母音인데 /j/重母音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ʁ/와 混用되기도 하는 등의 현상은 좀더 깊이 연구해 봐야 할 과제이다. 中世國語에서는 ‘사서소수’와 ‘샤셔쇼슈’가 ‘자저조주’와 ‘자저조쥬’, ‘차처초추’와 ‘차처초쥬’ 등이 변별되었던 것이다. 18世紀 이후 차차 이들 대립이 中和되어 모두 口蓋音으로 발음하게 되었다고 볼 때¹⁶⁾ 齒擦音 ‘스, 스, 츠’ 아래의 /아, 어, 오, 우/系 母音이 이들 19세기 문헌에서는 어째서 대부분 /j/重母音으로 표기되고

14) 許雄, 前掲書, p. 443참조.

15) 이런 예를 좀더 소개해 보면, ‘쇼릭(明7b), 쇼기고(同10b), 들췌(同33b), 씩고(南3b), 혼(三3b), 직조(同23b), 숨기고(·1b), 황하고(同1b), 죽이니(同14b), 샹나회(五7b), 샹랑(同8b)……’와 같이 많은데, 이런 예들은 /아, 오/系의 非/j/重母音이나 ‘우’와 함께 混用되는 현상을 보인다.

16)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85), p. 130참조.

있는지는 未決의 문제이다.

이런 사실은 비록 표기상으로는 /j/重母音을 취하고는 있으나 발음상으로는 이미 齒擦音 아래에서 非/j/重母音과 /j/重母音의 대립이 中和되어서 원래 /j/重母音이던 /야, 여, 요, 유(혹은 외위)/가 이미 單母音化 과정을 겪어 /아, 어, 오, 우(혹은 외, 위)/가 되고, 단지 표기상으로만 문헌 전체의 표기 경향에 따라 /j/重母音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非/j/重母音으로 混用될 개연성들이 있다.

7. /·/의 變貌

母音 /·/의 音價는 앞서 16세기에 제1단계 소실(제2음절 이하에서의 소실)을, 18세기 後半에 제2단계 소실(語頭音節에서의 소실)을 겪음으로써 그 音價가 사라졌다. 音價의 소실에서 약 1세기 정도의 간격이 있는 19세기 後半에는 그 대신 어떤 母音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2음절 이하의 경우를 보겠는데, /으, 아, 오/로 많이 나타나며 표기상 /으/와 /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보면, /으/의 경우

‘마^으음(明20b), 고^으을9(同23b), 아^으들(同32b), 다르^으리오(南5b), 가르^으켜(同6b), 바르^으게(同8b), 들^으려(三5a), 모^으든(過10a), 버르^으슬(同13b), 가르^으려야(同18b), 금바^으들(龜4b), 모^으르는(同10b), 버^으슬(同17a), 보^으름(同17a)……’

과 같은 예가 보인다. /아/의 경우는

‘맞^아침^아너(明23a), 두^아다^아렸^아노라(同24a), 반^아다^아시(同27b), 회^아차^아리(同32a), 오^아날(南3a), 저^아바^아려(同3b), 모^아다(三20a), 가^아라^아치^아오미(同19a), 하^아날(龜14b), 며^아나^아리(同18a), 버^아살(同21b)……’

과 같은 예가 보인다. /오/의 경우를 보면

‘아^오르^오리(明24b), 아^오(南6b), 살^오지(同8a), 지^오코(同8a), 죠^오고^오만(三6b), 하^오로(龜16a), 도^오로^오려(同27a), 모^오로^오게(敬1b)……’

와 같이 나타난다. 그 외에 ‘도척(明35a), 맛침(龜19a)……’이 보인다.

다음으로 제1음절의 경우를 보면, 주로 /아/로 많이 표기되는데, 예를 보면

‘삼년에(明9a), 하야곰(同13a), 사나회(同13b), 가리쳐(同16a), 참가(同24b), 활(同28b), 달(同33a), 가만이(南1b), 샤도(三4a), 하로(龜16a), 하나(敬1a), 한(同1b)……’

과 같은 예가 보인다. /야/의 예로서 ‘샤이(三22b), 샤인(過13b), 자서이(龜27b), 샤나회(五7b), 샤랑(同8b), 샤회(同9a)……’가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흙(明14a), 고을(同23b), 도리(三4b), 버리며(同6a), 허물며(龜23b)……’와 같은 예도 있다.

표기에 있어 위의 예들은 /·/와 混用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원래 /·/가 아니었던 母音들까지도 /·/로 표기되는 등의 혼란을 빚기도 한다. 이는 비록 /·/의 音價가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소실을 18세기 後半에 완결짓기는 했지만, 그에 대체되는 母音이 일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單語에 따라 /·/와 비슷한 母音으로서 발음하기 편리한 대로 습관화되는 母音이나, 모호한 발음의 경우는 표기자의 손놀림에 따라 다양하게 여러가지 母音으로 대체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결과로 /·/는 여러 가지 母音으로 혼란된 표기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 혼란된 실태를 약간 예로 들어 보면,

‘벼슬(明31a) : 벼살(龜21b) : 벼슬(同17a), 햅야곰(南2a) : 햅야곰(明15a) : 하야곰(同13a), 가르쳐(龜4b) : 가라치고(龜5a) : 가르치시고(同19b), 하늘(同6b) : 하날(同14b) : 햅날(同36b), 초흥(同29b) : 초랑(三20a) : 샤랑(同22b) : 샤랑(五8b), 옳을(龜11b) : 오날(南3a) : 옳날(龜24b), 눈눈(同10a) : 나눈(同14a), 즈바(明35a) : 차바(同16b) : 좃고(同25a)……’

와 같이 매우 많은 예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혼란된 모습은 /·/의 音價消失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에 대체될 母音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못하고 발음상 비슷하게 느껴진 母音이나 표기자에 따라 여러 가지 母音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혼란은 원래 /·/가 아니었던 母音까지도 그 표기를 /·/로 하는 등의 결과

를 빛은 것이다.

8. 母音調和의 解體樣相

母音調和는 일찌기 해체되기 시작했는데, 15세기 문헌에 이미 그런 현상이 보인다. 이 현상은 /·/音價의 消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陰性母音化에 따른 母音調和의 해체를 들 수 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를 보면 ‘-(ᄃ)야:-(ᄃ)여’와 ‘ᄃ-:허-’의 並行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나타나는 실태를 보자. 같은 單語에 대하여 ‘-ᄃ야:ᄃ여’가 混用되는 예로

‘아니 ᄃ야셔(南3b):아니 ᄃ여셔(明19b), 위 ᄃ야(過10a):위 ᄃ여(明7b),
다 ᄃ야(過11a):다 ᄃ여(同12a), 향 ᄃ야(同12a):향 ᄃ여(同19b), 인 ᄃ야(龜20a)
:인 ᄃ여(同17b), ᄃ야금(敬8b):ᄃ여금(五7a), 득죄 ᄃ야스나(過12b):허리라
ᄃ야스니(龜14b), 광포 ᄃ야더니(過20b):광포 ᄃ여더니(同20a), 못 ᄃ야노라(龜
27b):감수 ᄃ야노라(敬6a)……’

와 같이 그 예가 매우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ᄃ-:허-’의 경우를 보면 ‘ᄃ물며(三4a):허물며(龜23b), 괴이ᄃ(南12b):괴이ᄃ(龜27b)’ 등이 있다. 특히 (龜)에서 ‘허-’의 예만을 들어 본다면

‘싱각ᄃ도(8b), ᄃ지(9a), ᄃ리라(14b), ᄃ며(14b), 말ᄃ시(27a), 족ᄃ
(30b), 엇지ᄃ시(13a), 소세ᄃ(14b), 안ᄃ(20b), 착ᄃ(14a), 명ᄃ(14b),
불ᄃ(14b), 관ᄃ(18a), 지ᄃ(18a), 비ᄃ(23a)……’

와 같이 많이 볼 수가 있다. 표기상 ‘ᄃ-’가 ‘하-’로 나타난 경우는 ‘하야
금(明13a), 괴록ᄃ(龜23b)’ 등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당시 母音調和가 문란한 상태에서 ‘ᄃ-’의 陰性母音化 현상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ᄃ야’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ᄃ여’로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허-’ 보다도 ‘-ᄃ여’의 경우 일곱 문헌 전체를 통해 나타나고 또 그
예가 매우 많음을 볼 때, ‘ᄃ’와 關連시키기보다 오히려 用言의 活用에 있어

‘-아’가 陰性母音化 傾向을 나타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안저도(明31a), 박여(南7b), 되여(同15a) 빗쳐여(竈19a), 마쳐(敬5b), 지어넛엿시오(同4b)……’의 예로 보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단순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陰性母音化 傾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陰性母音化 현상이 19세기 中期부터 특정한 單語에 즐겨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는 바로 ‘ㅎ-’와 ‘-(ㅎ)야’의 경우에 ‘허-’와 ‘-(ㅎ)·여’를 즐겨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國語의 전체적인 陰性母音化 傾向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아오(南6b) : 아우(明20a), 더옥(南13a) : 더욱(明24a), 외오고(明7a) : 외우고(同6b), 꿩오고(竈6b) : 꿩우고(同21b), 비호기(五9a) : 비후는(三23a), 하리고(南3b) : 버리며(三3b), 모퇴리니(南9a) : 모퇴여(三7a), 일흔바(竈24b) : 일흔바(同25a) ㅎ야흙(南2a) : ㅎ야흙(過10a)……’

와 같이 나타난다. 표기상의 혼란으로 인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이런 예가 보인다는 것으로도 陰性母音化의 움직임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어려운(三5a), 더러운(過10a), 어지러운(竈38b)’ 등의 예도 없진 않으나,

‘어지러흔(明10a), 어려오니라(同11b), 더러흔(同34a), 어러흔(同35b), 요괴러흔(過b), 거나려(明15a), 두로(同28a), 뚝꾸흔(竈19b), 얼울(同15b)……’

와 같이 원래 陽性母音인 곳에 陽性母音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역시 표기상의 혼란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현상이 당시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音韻連結의 방식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하나가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 보다 ‘-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陽性과 陰性에 대한 뚜렷한 調和意識이 약해지고 대신 語彙에 따라 혹은 文法上的의 연결에 따라 즐겨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傾向이 표기에 반영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現代國語에서도 나타난다. 단순히 母音調和에 따라 陽性母音과 陰性母音의 연결 상태만을 따지기 보다는 語彙나 文法的의 側面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정한 音韻의 選好傾向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는 曲用的 경우와 관련시켜 생각해 봐도 그러하다.

9. 其他

語幹 'ㅎ' 脫落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 '시언^ㅎ고(明11a), 셔른(同34b), 찰아리(龜29a)' 등은 이미 'ㅎ'이 默音化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문혀져야(明12b) : 문혀진지라(南6a), 베이시니(明18a) : 버히고(三7a), 일혀다(三23a) : 일혀여(同24a), 도로여(同24a) : 도로혀(同23b)' 등은 두 가지가 混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싸히고(南14a), 논^ㅎ고(龜8b), 갈혀여(同19b), 모^ㅎ면(敬2b), 빅^ㅎ제(同6b), 사나^ㅎ회(明13b), 일^ㅎ흠(南6a), ^ㅎ흠(過18b), 인^ㅎ회(龜5b), 종^ㅎ회(同6b), 아^ㅎ회(五7b), 샤^ㅎ회(同9a)……'

등은 아직까지도 現代國語와는 달리 語幹 'ㅎ'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미 많은 예에서 'ㅎ'이 탈락된 語形을 보여 주고 있어서 특히 用言의 경우는 이미 語幹 'ㅎ'이 默音化된 상태로 발음하는 것이 一般화된 경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움라우트(umlaut) 현상을 보면,

'자바^ㅎ탕게다가(明16b), 메^ㅎ긴(明28b), 지^ㅎ핍이(同28b), 셔^ㅎ이에(同31b), 식^ㅎ기(同33b), 실오^ㅎ헛기(過12b), ^ㅎ헛지(龜9a), 식^ㅎ여(同23b)……'

와 같이 비교적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글라이드(glide) 현상¹⁷⁾의 경우를 보면 문헌에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면,

'회^ㅎ여(明10a), 되^ㅎ여(同20a), ^ㅎ여^ㅎ는(同28b), 예^ㅎ여^ㅎ니(同31a), 메^ㅎ여(同32a), 덩피^ㅎ여도(南3b), ^ㅎ여^ㅎ니(同5a), 갈^ㅎ혀여(三19b), 스^ㅎ여(同25a), 어^ㅎ여(過10b), ^ㅎ여^ㅎ니(同11b), ^ㅎ여(同18a), 미^ㅎ여(敬8a), ^ㅎ여^ㅎ니(三4a), 신^ㅎ여(同3a), 말^ㅎ여(同4b), ^ㅎ여^ㅎ니(過9b), 신^ㅎ여(龜28b), ^ㅎ여^ㅎ니(五4b)……'

17) 金亨奎, 國語史概要, (一潮閣, 1985), pp. 158~159참조.

glide현상이란 前舌母音/이, 에, 애, 외, 위/와 그 뒤에 後舌母音/오, 어, 우/가 직결되면 그 사이에 /j/母音을 개입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와 같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런데 glide 현상을 보이지 않는 ‘업티어(過 11a), 누리시리오(過10a), 아니 항시리오(麗28b), 이어(同27a), 대답항리오(五 4a), 다텔시리오(同4b), 항리오(同9a)’ 등 몇몇 예가 있다. 또한 ‘ㄱ’脫落의 흔적으로서

‘피오(明33a, 血), 우근이오(南6a), 슝이여든(同8b), 근심이여든(麗31b), 직될거시어늘(麗38a), 거시어니와(敬5b), 도리어늘(五8a), 황하슈오(明16b), 저갈모오(同19b), 장슈오(同20b), 버금아즈오(南1a)……’

와 같이 대부분 원래 ‘ㄱ’脫落의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즉 ‘ㄱ’이 탈락한 자리에서는 glide 현상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¹⁸⁾

끝으로 /어/가 /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누엇든(明33a), 아니드냐(過12a), 흐리지(同12b), 흐드리니(麗6a), 떨시 항 드니(同17a), 괴도 항드니(同22a), 듯디아니 항드니(同23b), 누흔(同24b), 보흔(同27a), 허송 항엿드니(同45b)’

등의 예가 나타난다. 國語史概說에서는¹⁹⁾ 이런 현상을 韻素와 연관하여 長音表記의 形態로 보고 있는 데, 現代國語의 研究에서도 취급해 볼 만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Ⅲ. 結 論

앞에서 이제까지 19세기 後半期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표기상에 나타난 音韻現象에 관해 살펴 보았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結論에 대신하기로 하겠다.

音韻論의 側面에서 살펴 보았던 내용으로는, 口蓋音化·頭音法則·硬音化·

18) 약간의 예에서 ‘ㄱ’이 탈락한 자리라도 glide현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스름이여든(南13a), 안니여든(同10a)’ 등에 불과하다.

19)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85), p. 204참조.

口蓋母音化·圓唇母音化·單母音化·／·／의 變貌·母音調和의 解體樣相(陰性母音化) 및 기타 부분에서 語幹 ‘ㅎ’ 脫落·움라우트(umlaut) 현상·글라이드(glide) 현상 및 /어/가 /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상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口蓋音化의 경우를 보면, ‘ㄷ, ㅌ’ 口蓋音化는 표기상 몇몇 漢字語를 제외하고는 거의 口蓋音化된 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用言의 경우도 몇 개의 예를 제외하면 완전히 現代國語와 같은 수준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音韻變化의 현실로 볼 때 漢字語도 완전히 발음상으로는 口蓋音化를 거쳤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시기의 國語는 近代國語보다도 現代國語에 더 가깝다.

頭音法則의 경우를 보면, 표기상으로 保守的인 형태(완전히 頭音法則을 거치지 않은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19세기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가 頭音法則 현상을 보이고 있다. 口蓋音化 현상보다는 덜하지만 그 진행 정도로 볼 때 당시 발음상으로는 口蓋音化 현상 못지 않게 頭音法則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물론 지역적 격차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本研究의 대상 문헌의 경우로 볼 때, 近代國語와 現代國語의 中間的 位置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硬音化의 경우는 표기상으론 現代國語와 가깝다고 보긴 어려우나, 발음상으로는 ‘ㄷ’系와 ‘ㅌ’系 並書가 된소리임을 알 수 있다. 아직 並書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音韻의 연결상 된소리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現代國語에서처럼 일정한 맞춤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표기에 혼란을 겪었고, 또한 표기와 발음현실과의 不一致 및 不合理性으로 빚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口蓋母音化 현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예를 찾을 수 없었으나 여기 문헌에서 매우 많은 예를 보게 됨으로써, 적어도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난 音韻現象이라는 사실에 구체적인 실증을 하게 되었다.

圓唇母音化 현상은 몇몇 保守的 표기 예를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완성단계라 할 만큼 진행되었다. 심지어는 曲用에서 助詞에까지 나타나고 用言의 活用에서 語尾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또한 現代國語에서도 문제가 되는 形用詞化 接尾辭 ‘-브/ㅼ/프-’도 여기서는 ‘-부/(부)/푸-’로 나타난다. 따라서 圓唇母音化에 있어서는 발음이나 표기가 일치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一般化된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單母音化 현상에 대해서는 /의·익·위/ 등의 경우와 齒擦音 ‘시, 지, 치’ 아래서 /j/ 重母音이 쓰였던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익/의 경우는 /애/가 대부분 /익/로 표기되었고 움라우트 현상을 가지고 單母音化 되었음을 추정했다. 특히 ‘대, 타, 데, 티’ 등이 混用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 母音의 발음이 같았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같지 않았다 해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는 未決의 과제로 남겼다.

/·/의 變貌에 있어서는 /·/가 音價消失 후 그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대해 살펴 보았다. 제2음절 이하에서는 /으/와 /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오/도 비교적 많이 보여 매우 혼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음절에서는 주로 /아/로 표기되기는 하지만 문헌 전체의 표기 경향에 따라 약간의 문제가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의 혼란은 물론 /·/의 音價消失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에 대치될 母音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발음상 비슷한 다른 母音으로 발음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표기자의 손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母音으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원래 /·/가 아니었던 母音까지도 /·/로 표기되는 현상도 보게 된 것이다.

母音調和의 解體樣相에 있어서는, 물론 母音調和가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부터 그 해체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문헌에서 특히 陰性母音化의 측면을 다루었다. 이들 문헌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ᄒ- : ᄒ-’와 ‘- (ᄒ)야 : -(ᄒ)여’의 並行을 들 수 있다. 같은 單語에서 두 가지가 並行되기도 하고 ‘ᄒ-’와 ‘-(ᄒ)여’가 많이 나타나는 사실로 볼 때, 陰性母音化 현상은 한꺼번에 전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語彙나 文法上の 연결에서 점차적으로 번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19세기 中半期 이후의 國語는 거의 近代國語의 성격을 벗어나 現代國語에 가깝게 접근했음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문헌의 표기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혼란된 상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현실 발음을 되도록 정확하게 나타내 보려는 노력인 것이다. 아울러 원래 形態素의 모습을 표시해 주려는 시도로서 오히려 당시 國語 音韻現象에 대해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 郭忠求, 十八世紀 國語의 音韻論的 研究(國語研究 43호 1980).
- 金亨奎, 國語史研究, (一潮閣, 1983)
國語史概要, (一潮閣, 1985).
- 南廣祐, 國語學研究, (宣明文化社, 1975)
朝鮮漢字音研究, (一潮閣, 1977)
(補訂)古語辭典, (一潮閣, 1983).
-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85)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叢書3](塔出版社, 1985)
- 李秉根,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1979)
- 李熙昇,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 (新丘文化社, 1983).
- 許 雄, 國語音韻學, (正音社, 1982).